

國立公園 入場料 廢止에 따른 國立公園 管理政策 樹立 方案

李周熙^{1*} · 裴珉琦²

¹大邱大學校 觀光學部, ²大邱大學校 專任研究教授

Establishment of National Park Management Policy with Elimination of Entrance Fee

Ju-Hee Lee^{1*} and Min-Ki Bae²

Division of Tourism, College of Business, Daegu University, Gyeongsan 712-714, Korea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입장료 폐지가 국립공원의 탐방만족도 및 휴양자원, 공원시설, 교통, 탐방서비스, 탐방정보, 탐방분위기라는 국립공원의 관리부문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국립공원 관리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06년 가을 가야산 국립공원 탐방객 33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기술적 통계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72.6%가 찬성하였다. 2) 입장료가 폐지되면 자연훼손과 쓰레기 투기 등 탐방분위기가 가장 많이 나빠질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상업·숙박시설, 특산품 판매, 축제, 탐방정보 제공은 입장료 폐지 후 개선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응답자들은 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 탐방만족도가 상당히 저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탐방만족도 저하에 가장 기여도가 큰 변수는 탐방분위기 변화수준이며, 가장 영향력이 작은 변수는 휴양자원 변화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입장료 폐지 후 국립공원 관리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elimination of entrance fee (EEF) affecting visitor's satisfaction (VS) and management sectors such as natural resources (NRs), park facilities, transportation, visitor service, visitor atmosphere (VA) in national parks (NPs). This research had obtained data through a questionnaire, which surveyed 336 visitors at Gayasan NP in 2006. The data were analyzed the data using descriptive statistical method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method. It was found that 1) About EEF, 72.6% of respondents agreed. 2) As entrance fee was abolished, respondents predicted that degree of VA such as crowding, waste throwing, disorder etc. grew worse most. On the other hands, respondents predicted number and quality of commercial·lodging facilities, festival, and local products would improved. 3) Respondents predicted that degree of VS would worse. 4)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the VA on VS have been determined to have respectively 1.84 times more important than that of the change degree of NRs.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 management of VA in NP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prevent decline of VS. This paper would be helpful to establish national park management policy after EEF.

Key words : entrance fee, management sector, management policy, visitor's atmosphere, visitor's satisfactions, national park

서 론

우리나라 국립공원 입장료는 1970년 5월 속리산 국립공원에서 최초로 문화재 관람료와 합동징수된 이래, 2006년 말까지 입장하는 국민 1인당,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합한 금액의 입장료가 징수되어 왔다. 하지만 입장료

징수정책은 징수하는 방법, 탐방객의 가격 수용성, 사회적 형평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 및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어 왔으며(Crompton and Kim, 2001; 박종구, 2005 재인용; 국립공원연구원, 2006), 국립공원 탐방만족도 관련 연구들(국립공원관리공단, 2004; 2006; 이주희와 배민기, 2006)을 비롯해서, 2004년 국가고객만족도 조사, 국정감사 등에서 국립공원의 탐방만족도가 저하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입장료 폐지가 대두됐고,

*Corresponding author
E-mail: jhlee3@daegu.ac.kr

그 이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당정합의에 의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의 폐지가 결정되었다.¹⁾

이러한 국립공원의 입장료 폐지결정은 지속적인 야외휴양수요의 증가와 주 5일 근무제 등 사회적 여건 변화와 맞물려 앞으로 국립공원 관리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입장료 폐지가 결정되었지만, 지금까지 입장료 폐지 이후 국립공원 관리방향이 어떤 식으로 강화 혹은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관리주체인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지정, 공원시설이용 예약제 확대, 샛길 출입통제강화 등을 실시하겠다고 공고 하였지만(www.npa.or.kr), 이러한 대책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입장료 폐지가 공원관리부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특히, 입장료 폐지와 관련하여 탐방객의 입장에서 입장료 폐지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료 폐지가 국립공원의 탐방민족도를 비롯한 휴양자원, 공원 시설 등의 관리부문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한 연구는 입장료 폐지 후 국립공원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서 시급히 수행되어야 할 연구과제이다. 하지만, 기존의 국립공원 입장료 관련 연구들은(Demore et al., 1988; Becker, 1992; Bengston and Fan, 2002; Kyle et al., 2002; 김성섭, 2000; 박종구, 2005; 국립공원관리공단, 2005) 국립공원 입장료 가격의 산정, 국립공원 가치평가를 통한 입장료 차등화 방안, 입장료 부과와 탐방객의 행동 간의 관계, 입장료 부과 정책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논의 등에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을 뿐 입장료 폐지시 국립공원의 관리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입장료 폐지와 관련된 쟁점에 대한 탐방객의 인식과 입장료 폐지가 국립공원의 휴양자원, 공원 시설, 교통, 탐방정보, 탐방서비스, 탐방분위기로 세분화 되는 국립공원 관리부문 및 탐방민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입장료 폐지이후 국립공원 관리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립공원 입장료 및 관리부문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의 의의

일반적인 입장료 부과 정책은 사회적 형평성과 가격수용성에 따라 결정된다(박종구, 2005).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입장료 부과정책은 1970년 5월 속리산 국립공원을 시

작으로 2006년 12월 말까지 지속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입장하는 탐방객 1인당,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합한 금액을 통합입장료로 정수하여(2006년 기준 연간 약 270억원) 입장료 수익 대부분을 국립공원 관리비용으로 사용하였다(국립공원관리공단, 2006). 그러나 입장료 부과정책은 사회적 약자 및 상대적 빈곤계층에게 주는 심리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되며(Kyle et al., 2002), 국가나 입장료 정수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행위보다는 공원내의 자연자원에 대한 훼손행위, 쓰레기 투기행위, 화장실 등 시설 훼손행위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DeMore et al., 1988).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입장료 정수로 인해 탐방객, 인근 주민, 공원내 사찰, 지방 정부 등 관련 주체들 간의 이해충돌로 갈등양상이 지속되어 왔다. 우선, 국립공원은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곳(자연공원법 제 39조)으로서 관리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함에도 입장료가 정수되어 왔다는 점,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1,000~2,200원까지의 문화재관람료와 의무적으로 합동징수한다는 점, 국립공원관리 업무 중 입장료 징수업무의 비중이 너무 높아 자원 및 시설 훼손 방지, 탐방객 서비스 등 본연의 관리업무가 소홀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왔으며, 이는 국립공원의 탐방민족도를 떨어뜨리고 국립공원 관련 민원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국립공원 연구원, 2006). 이렇게 누적된 불만은 결국, 국립공원의 입장료 폐지 및 합동징수에 대한 위험 논란으로 이어졌으며, 공론화 과정에서 국립공원의 공공성과 국민의 편의를 앞세운 입장료 폐지론이 좀 더 공감을 얻어 2007년 1월 1일부터 폐지가 결정되었다. 하지만, 입장료 폐지 이후에 국립공원 탐방객·휴양자원·공원시설의 관리방안, 세금이용의 공평성, 문화재관람료 징수방안, 가격수용성에 대한 고려(박종구, 2005) 등의 선결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료 폐지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많다.

2. 국립공원의 관리부문

관광의 공급체계(Jubenville, 1976; Gunn, 2002)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국립공원의 관리부문은 첫째, 국립공원의 가장 중요한 매력물로서 경관자원, 희귀 동·식물자원, 문화자원 등으로 분류되는 휴양자원(Wang, 1996; Noe and Uysal, 1997), 둘째,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 2조에 의거하여, 용도지구별로 설치되며 탐방객의 활동을 지원하는 공원 시설, 셋째, 국립공원의 선택 및 활동유형 결정 등에 영향을 주는 탐방정보(이주희와 배민기, 2006), 넷째, 국립공원으로의 접근성 및 공원 안에서 이동 용이성을 의미하는 교통(Daigel and Zimmerman, 2004), 다섯째,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일련의 관리활동인 국립공원의 탐방서비스(국립공원관리공단, 2006), 여섯째, 탐방객이 특정한

¹⁾2007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되었으나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공원시설 사용료 인상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음.

자연공원에 대한 심리적 기대수준, 타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혼잡도, 이용질서, 지나친 상행위 등 국립공원에서의 활동에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구성개념(배민기와 장병문, 2003)인 국립공원의 탐방분위기(자연공원법 제27조; 동 시행령 제 24조)로 구분된다.

이러한 관리부문의 수준은 탐방민족도의 수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립공원의 휴양자원은 탐방민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Stankey, 1973; Noe and Uysal, 1997; Togridou *et al.*, 2006), 공원시설의 만족도는 대체로 주차장, 안내시설, 화장실 등의 불만족이 높고, 안전, 숙박, 상업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경향이 있다(조윤주 외, 2000; 박장근과 방환복, 2000). 사전에 제공된 탐방정보는 탐방경험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국립공원의 자원과 시설의 훼손방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Akama and Kieti, 2003). 국립공원의 탐방서비스의 질은 탐방객의 만족과 재방문 의사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청소상태, 시설의 정비상태 등 서비스의 확신성이 탐방민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문으로 규명되었다(이주희와 배민기, 2006). 국립공원의 탐방분위기는 자원·시설의 관리상태, 밀도, 혼잡, 무질서한 이용, 지나친 상행위, 쓰레기 투기, 자연훼손, 악취·소음과 수질 오염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는 탐방민족도에 영향을 미친다(Driver and Bassett, 1975; Hammitt and Rutlin, 1995; Schneider and Hammitt, 1995; Buultjens *et al.*, 2005; 장병문과 배민기, 2002; 박석희, 2005; 박청인, 2005).

3. 입장료 폐지와 국립공원의 관리부문

입장료 폐지 이후 국립공원 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입장료 폐지시 탐방객 수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국립공원 연구원(2006)에 따르면 국립공원별 탐방특성에 따라 상이하나 전체적으로 입장료 가격이 1%하락할 경우 연간 약 138천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²⁾ 탐방객 수의 변화는 시간거리에 탄력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입장료 폐지시 탐방객 수의 증가는 시간 거리가 적게 소요되는 대도시 인접 국립공원인 북한산, 계룡산, 월악산 등의 탐방객 수가 상대적으로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탐방객 수의 증가는 국립공원 관리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며, 최소한 현재와 같은 수준의 관리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관리인력 및 관리 비용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³⁾

입장료 폐지로 인해 국립공원 관리에 미칠 수 있는 영

향들로는 먼저, 국립공원 탐방객 관리의 경우, 국립공원 입장객 수의 정확한 집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동반유형을 가진 탐방객들이 얼마나, 언제, 어디로 입장해서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 차량접근이 가능한 곳에 가족 및 단체 탐방객이 집중될 우려가 있으며, 국립공원 인근 거주민들의 잊은 출입이 예상된다. 국립공원의 휴양자원 및 공원시설의 경우, 탐방객 수의 증가 및 잊은 탐방횟수로 인해 국립공원의 매력물에 대한 훼손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탐방객의 행위제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연보존지구 등의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훼손 우려가 높다. 국립공원의 탐방서비스의 경우, 현재와 동일한 인력 및 비용으로는 탐방서비스의 질적인 하락이 예상되므로, 증가하는 탐방객 수에 따른 인력 및 재원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특히 탐방서비스의 경우, 증가하는 탐방객 수만큼 요구하는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질적·양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공원의 교통의 경우, 현재와 같은 접근도로와 주차장 등 한정된 교통시설로는 증가하는 탐방객들을 수용하는데 부족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기별, 공원별 탐방객 집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공원의 탐방객의 증가는 국립공원의 탐방분위기에 특히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쓰레기 투기, 혼잡, 잡상인·불법상행위, 취사금지 및 불법소지품 반입 등 탐방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의 증가가 예상된다. 국립공원 탐방정보의 관리는 입장료 폐지로 예상되는 탐방객 수의 증가로 인해 국립공원의 각 관리부문별 질적·양적 수준 저하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탐방객들에게 예측되는 탐방객 수, 공원시설 예약상황, 혼잡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경우, 탐방할 국립공원 및 탐방의 시기, 활동유형 및 공간 등의 결정과정에서 탐방객 분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 국립공원의 입장료 관련 연구로서 박종구(2005)는 탐방객의 사회적인 형평성과 가격수용성을 고려해볼 때,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많이 저렴해져야 하며, 가격결정 시 공원정책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이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김성섭(2000)은 미국텍사스 주립공원을 사례로 입장료수준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분석한 결과, 지불한 입장료에 대한 가치 인식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규명하였다. 국립공원 관리공단(2005)은 램지가격설정법을 이용하여 국립공원별 적정 입장료 수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내 기존의 연구들은 국립공원의 입장료 가격조정 및 국립공원 가치 평가 수단으로 입장료를 이용하고 있을 뿐 입장료 폐지 후 관리정책의 수립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국외 연구의 경우, 미국의 시범입장료프로그램(recreation fee demonstration program) 사례를 비롯하여 Kerkvliet and

²⁾ 입장료 폐지의 의미는 감소율이 2006년 현재 1,600원에서 0 원으로 폐지되는 경우로서, 가격감소분이 무한대로 떨어지는 뜻이기 때문에 수요변화량 추정이 불가능 하다.

³⁾ 국립공원 연구원(2006)에 따르면 연간 관리비용이 2006년 대비 약 56억 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Nowell(2000)은 입장료에 대한 절차적·분배적 정의에 대해 논하였으며, Kerr and Manfredo(1991)는 공원입장료가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공원방문빈도를 줄이고 목적지 변경의 원인이 됨을 규명하였다. Reiling *et al.*(1992)은 공원 입장료 부과정책은 인근에서 공원을 방문하는 빈도가 높은 사람 및 저소득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Crompton and Lamb(1986)은 공원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입장료 징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국외연구에서도 입장료관련 연구는 거의 적정입장료 산정 및 입장료부과가 사회적 영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입장료 폐지가 국립공원 관리부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국립공원에서 입장료 폐지가 지니는 의의와 입장료 폐지가 탐방객 수의 증가를 가져옴으로서 휴양자원, 공원시설, 탐방서비스, 교통, 탐방정보, 탐방 분위기로 세분화되는 국립공원의 각 관리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입장료와 관련된 기준의 국내외연구에서는 입장료의 차등화 및 국립공원의 가치평가 수단에 한정되어 있어, 입장료 폐지가 국립공원의 관리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규명된바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입장료 폐지가 국립공원의 탐방민족도 및 관리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차 국립공원의 관리정책 수립 및 관리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론

이론적 고찰 및 기존 연구결과를 볼 때, 입장료 폐지는 탐방객 수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국립공원의 휴양자원, 공원시설, 탐방정보, 교통, 탐방서비스, 탐방분위기 등 6개의 관리부문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인과관계의 크기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입장료 폐지 후 탐방객 수 및 각 관리부문의 변화에 대한 상당기간의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입장료 폐지가 급하게 결정된 상황에서는 입장료 폐지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수준⁴⁾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관리정책 수립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출된 각 관리부문별 세부관리항목을 대상으로 입장료 폐지가 각 관리세부항목에 어떠한 변화를 줄 것인지, 입장료 폐

지로 인한 각 관리부문의 변화수준이 궁극적으로 탐방민족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를 탐방객의 의견수렴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산악형 국립공원인 가야산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추출의 방법은 연구대상지의 종점 이용지점을 선정하고 조사원을 배치하여 가능한 탐방객의 성별비율 및 연령층을 다양하게 조사하도록 하는 편의추출방법을 적용하였다. 국립공원의 탐방민족도 및 관리부문별 33개의 세부관리항목들은 모두 10점의 등간척도(매우 나빠질 것(1점), 현상태 유지(5점), 매우 좋아질 것(10점))로 측정하였다. 다만, 탐방민족도의 변화수준과 각 관리부문의 변화 수준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정에서는 탐방민족도가 저하될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5점 척도로 변환되었다. 왜냐하면 국립공원 관리의 목적은 탐방민족도의 저하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설문지는 사전조사 및 예비조사를 거쳐 완성하였으며, 본 조사는 2006.10.23.-2006.11.19.(28일간) 실시되었으며, 연구대상인 국립공원에서 조사자가 할당된 응답자 수만큼의 설문지를 가지고 탐방을 마치고 돌아가는 탐방객들에게 1:1 면접법에 따라 응답자 기재방식으로 조사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가 있는 설문지를 제외한 총 336매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우선적으로 입장료 폐지와 관련된 항목 및 입장료 폐지 시 세부관리항목의 변화정도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후 입장료 폐지 시 탐방민족도가 저하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를 규명하기 위해서 종속변수를 탐방민족도로 하고 독립변수를 6개의 관리부문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다변량 통계분석에서 요구되는 자료의 특성을 점검하기 위해 탐방민족도 및 입장료 폐지 시 관리부문의 변화수준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입장료 폐지 시 탐방민족도와 관리부문 수준간의 관계를 검정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관리부문의 변화수준이 탐방민족도의 저하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 인과관계의 방향, 인과관계 방향의 크기, 상대적 기여도를 검정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SPSS Ver. 13(SPSS Inc., 2004)을 이용하였다. 입장료 폐지 시 탐방민족도 및 각 관리부문들의 변화수준에 대한 파악과 그 관계에 관한 검정은 입장료 폐지라는 관리여건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국립공원 관리방안 수립시 요구되는 지식을 제공해 줄 것이다.

분석결과 및 고찰

1. 입장료 폐지건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⁴⁾본 연구에서 탐방민족도 및 각 관리부문의 변화수준이라 함은 “탐방객이 입장료가 폐지될 경우, 국립공원에서 활동한 경험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 및 국립공원의 휴양자원, 공원시설, 교통, 탐방서비스, 탐방정보, 탐방분위기가 어느 정도 저하 혹은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계량적으로 평가한 값”을 말한다

표 1. 입장료 폐지관련 탐방객 인식조사 결과.

질문항목	찬반여부	빈도(명)	비율(%)
입장료 폐지	찬성	241	72.6
	반대	91	27.4
문화재 관람료만 따로 징수	찬성	150	45.5
	반대	180	54.5
탐방객 입장 제한	찬성	124	37.5
	반대	207	62.5

표 2. 입장료 폐지시 우선 국립공원 관리부문.

관리항목	빈도(명)	비율(%)
휴양자원 관리	105	33.3
공원시설 관리	82	26.0
탐방분위기(흔잡, 소음, 잡상인 등) 관리	39	12.4
탐방객 행위(인화물질소지, 취사행위 등) 관리	25	7.9
탐방서비스(안내서비스, 안전서비스, 해설프로그램 등) 관리	33	10.5
탐방정보 제공	16	5.1
교통 불편해소	11	3.5
기타	3	1.0
합계	315	100.0

72.6%(241명)가 찬성하였으며, 국립공원 내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만을 따로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체의 54.5%(180명)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립공원의 관리를 위해서 탐방객 수를 제한할 경우, 이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62.5%를 차지하였다(표 1 참조). 이는 응답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입장료 폐지가 비용부담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국립공원 탐방과정에서 입장료 징수에 대해 불만이 많았음을 반증하고 있다. 하지만 입장료 징수라는 일련의 절차 및 부담이 없어짐으로서 국민들에게 국립공원을 자연생태계 및 휴양자원 보전공간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응답자들은 입장료가 폐지될 경우, 국립공원의 휴양자원에 대한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33.3%)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공원시설(26.0%), 공원분위기(흔잡, 소음, 잡상인 등)(12.4%), 탐방서비스(안내, 안전, 해설프로그램 등)(10.5%) 부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2. 입장료 폐지가 각 관리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입장료가 폐지되면 국립공원의 각 관리부문에 해당하는 세부관리항목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자료를 요약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세부관리

항목 전체 중에서는 자연훼손과 쓰레기 투기 등 탐방분위기가 가장 많이 나빠질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상업·숙박시설, 특산품 판매·축제 등을 입장료 폐지 후 더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휴양자원 부문의 경우, 응답자들은 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 계곡과 물의 맑고 풍부함이 가장 저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사회문화적 요소는 오히려 점차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경관이나 향기와 색 등과 같이 물리적인 자원보다는 야생 동·식물 등 생태적인 자원에 대한 훼손이 클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응답자들은 증가하는 탐방객을 위해 사회·문화적 요소인 특산품이나 문화행사 등을 늘어날 것이지만, 국립공원의 고유한 자연자원은 훼손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공원시설 부문의 경우, 응답자들은 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 국립공원 내 시설의 청결성이 가장 저하될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편의시설, 기반시설 또한 양과 질이 저하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 반면, 숙박시설, 관리시설, 상업시설, 안전시설은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응답자는 국립공원의 시설 중에서 탐방객의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시설은 상업, 숙박시설은 개선될 수 있지만 탐방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탐방로, 자연생태학습로, 화장실 등의 시설에 대한 수준은 저하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탐방서비스 부문의 경우, 응답자들은 입장료 폐지시 탐방서비스 항목 전체에 대해 그 수준이 저하될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안내서비스가 가장 많이 저하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응답자는 입장료 폐지시 증가될 탐방객 수를 고려할 때 현재의 제한된 인력과 예산이 유지될 경우 필연적으로 탐방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통부문의 경우, 응답자들은 입장료 폐지시 국립공원 접근성과 국립공원 내 이동의 용이성도 나빠지지만 무엇보다 주차의 편리성이 가장 저하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탐방객 수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결과로서 이해할 수 있다.

탐방정보 부문의 경우, 본 조사에서 관리부문 중 유일하게 양적 질적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리부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응답자는 앞으로 입장료 폐지될 경우 국립공원 탐방시기와 장소를 결정하는데 탐방정보의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탐방분위기 부문의 경우, 다른 5개의 관리부문에 비해 많은 질적 하락이 예상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응

표 3. 입장료 폐지가 각 관리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요약.

관리부문	세부관리항목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표준편차)
휴양 자원	지형(계곡, 기암괴석, 산봉우리, 습지 등)의 다양성과 매력도	331	1	10	4.31(1.83)
	계곡과 물(수량, 수질, 깊이, 물의 흐름)의 맑고 풍부함	331	1	10	4.11(1.82)
	야생동물(산집승, 새, 어류, 곤충 등)의 수	329	1	10	4.19(1.83)
	야생식물(숲, 야생지대, 원시림, 노거목 등)의 풍부함과 아름다움	326	1	10	4.28(1.89)
	사회적 요소(특산품, 기념물, 향토음식 등)의 다양함	330	1	10	5.26(2.03)
	문화적 요소(축제·문화행사, 사찰, 유적지 등)의 양과 질	330	1	10	5.27(2.08)
	경관(경치, 전망, 지세 등)의 수려함과 아름다움	327	1	10	4.60(1.94)
공원 시설	향기와 색(꽃, 나무), 소리(물, 바람, 새) 등의 아름다움과 매력도	331	1	10	4.69(2.06)
	탐방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326	1	10	4.58(1.97)
	판매시설, 상업시설 등 상업시설	320	1	10	5.25(2.17)
	호텔, 여관, 앙터리어 등 숙박시설	326	1	10	5.44(2.26)
	관리사무소 등 관리시설	318	1	10	5.07(2.04)
	휴게소, 금·배수시설, 쓰레기통, 화장실 등 편의시설	323	1	10	4.52(2.19)
	탐방안내소, 자연생태학습로 등 교육시설	322	1	10	4.83(2.17)
탐방 서비스	안전표지판, 대피소 등 안전시설	323	1	10	5.04(2.22)
	전반적인 국립공원 시설의 청결성	327	1	10	4.28(1.82)
	길, 불거리, 놀이, 기상 등의 각종 안내서비스 수준	328	1	10	4.81(2.01)
	자원해설·환경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서비스 수준	326	1	10	4.92(1.87)
	안전사고 및 자연재해 예방, 사고 후 구조 등 안전서비스 수준	327	1	10	4.83(1.98)
	이 공원까지 도착하는데 용이성	329	1	10	4.80(1.85)
	교통	국립공원 안에서 이동하는 편리성	326	1	10
탐방 정보	자가용을 가져오셨다면, 주차의 편리성	322	1	10	4.47(2.06)
	공원에 대한 탐방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도	330	1	10	5.02(1.86)
	탐방정보의 양, 정확성, 유용성의 정도	328	1	10	5.10(1.91)
	국립공원의 쓰레기 투기	328	1	10	4.10(2.01)
	국립공원의 탐방객의 자연훼손	329	1	9	4.08(1.89)
	국립공원의 소음	325	1	10	4.12(1.89)
	국립공원 내 싸움·시비로 인한 불안감	326	1	9	4.35(1.82)
탐방 분위기	국립공원 내 잡상인, 불법상행위로 인한 불편함	326	1	10	4.19(1.91)
	국립공원내의 혼잡정도	320	1	10	4.23(1.97)
	국립공원 내의 취사금지 등 금지활동 발생	326	1	10	4.31(2.05)
	국립공원 내 반입금지물건(담배 등 인화물질) 소지정도	322	1	10	4.33(2.09)
	국립공원의 대기 및 수질 오염의 정도	325	1	10	4.21(2.03)

답자들은 자연훼손이 가장 심할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쓰레기 투기나 소음 등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이 입장료 폐지시 탐방객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당연히 탐방객의 자연훼손행위, 소음, 혼잡 등의 발생빈도도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응답자들은 입장료 폐지에 따른 탐방객의 증가로 인해 탐방객을 수용해야 하는 상업·숙박시설과 국립공원 탐방정보 부문은 개선될 여지가 있으나, 그 외에 모든 세부관리항목에서 양적·질적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원시설의 청결성을 비롯해서 탐방분위기를 구성하는 혼잡, 소음, 자연훼손, 금지행위 위반 등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입장료 폐지시 탐방만족도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각 관리부문들의 변화수준

1) 입장료 폐지가 각 관리부문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입장료 폐지시 탐방만족도가 저하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어떤 관리부문이 탐방만족도의 저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입장료 폐지가 탐방만족도 및 국립공원 관리부문들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종속변수인 탐방만족도는 평균값이 3.99(표준편차=1.283)로서 응답자들은 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 탐방만족도가 상당히 저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입장료가 폐지될 경우, 국립공원 관리부문들 중에서 탐방분위기(평균값=4.08; 표준편차=2.019)가 가장 저하될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다음

표 4. 입장료 폐지시 탐방만족도 및 관리부문들의 변화수준에 대한 통계적 요약.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자례수	최소값	최대값
탐방만족도 변화수준	3.99	1.283	165	1	5
휴양자원 변화수준	4.33	1.771	165	1	5
공원시설 변화수준	4.56	2.022	165	1	5
탐방서비스 변화수준	4.56	1.768	165	1	5
교통 변화수준	4.41	1.760	165	1	5
탐방정보 변화수준	4.53	1.536	165	1	5
탐방분위기 변화수준	4.08	2.019	165	1	5

으로 국립공원의 휴양자원의 훼손(평균값=4.33; 표준편차=1.771) 및 교통부문에 대한 불편함(평균값=4.41; 표준편차=1.760)이 발생할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탐방서비스나 탐방정보는 다른 관리부문에 비해 저하의 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가 국립공원의 휴양자원에 대한 관리수준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만 입장료, 문화재 관람료, 주차비, 시설사용료 등 탐방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대한 개인별 차이를 보면, 편리한 정보수집에 대한 평가에서 개인적인 편차가 1.074로 가장 커졌으며, 안전·편의시설에 대한 평가에 대한 개인적인 편차가 가장 작았다. 이는 국립공원의 정보가 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등 정보제공 매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탐방객의 연령차에 따라 정보수집의 편리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각 변수의 값에 대한 정규성을 Sapiro-Wilk 검정결과, 모든 변수들의 표준정규점수(Normal)가 1에 가까워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다. 이상의 변수들의 통계적 특성과 정규성에 대한 검토 결과, 다변량 통계분석

상의 제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입장료 폐지시 탐방만족도와 관리부문 수준간의 관계에 관한 검정

종속변수인 입장료 폐지시 탐방만족도의 변화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국립공원 관리부문의 변화수준간의 관계에 관한 Pearson의 상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탐방만족도의 변화수준과 모든 관리부문들의 변화수준간의 상관계수의 값은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으며,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탐방만족도 변화수준과 탐방분위기 변화수준간의 상관계수 값이 0.641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탐방만족도 변화수준과 교통부문의 변화수준간의 상관계수 값이 0.41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탐방만족도 변화수준과 공원시설, 휴양자원 및 탐방서비스의 변화수준과는 각각 0.600, 0.581, 0.573의 비교적 높은 상관계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립공원의 탐방만족도 변화수준은 탐방분위기의 변화수준과 가장 관련이 있다는 의미이며, 입장료 폐지 후 국립공원의 탐방분위기를 잘 관리하는 것이 탐방만족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관리부문들의 변화수준간의 상관관계에서도 모든 상관계수값이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시설과 탐방서비스의 변화수준간의 상관계수 값이 0.717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교통과 휴양자원의 변화수준간의 상관계수 값이 0.369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탐방만족도와 각 관리부문들의 수준간의 상관분석의 결과, 다중회귀모형의 정립에서 다중공선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변수들은 없었다.

3) 탐방만족도의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각 관리부문들의 변화수준

표 5. 입장료 폐지시 탐방만족도와 관리부문들의 변화수준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탐방만족도	휴양자원	공원시설	탐방서비스	교통	탐방정보	탐방분위기
탐방만족도	1.000 (0.000) ^a						
휴양자원	0.581 (0.000)	1.000 (0.000)					
공원시설	0.600 (0.000)	0.582 (0.000)	1.000 (0.000)				
탐방서비스	0.573 (0.000)	0.637 (0.000)	0.717 (0.000)	1.000 (0.000)			
교통	0.415 (0.000)	0.369 (0.000)	0.383 (0.000)	0.393 (0.000)	1.000 (0.000)		
탐방정보	0.542 (0.000)	0.481 (0.000)	0.533 (0.000)	0.633 (0.000)	0.546 (0.000)	1.000 (0.000)	
탐방분위기	0.641 (0.000)	0.630 (0.000)	0.594 (0.000)	0.566 (0.000)	0.457 (0.000)	0.526 (0.000)	1.000 (0.000)

^a: 유의수준

표 6. 입장료 폐지시 탐방만족도 변화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각 관리부문들의 변화수준.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분석	142.722	6	23.787	29.534	0.000
잔차	127.254	158	0.805		
합계	269.976	164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value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275	0.244		5.220	0.000
휴양자원	0.116	0.057	0.160	2.033	0.044
공원시설	0.127	0.053	0.200	2.386	0.018
탐방서비스	0.037	0.066	0.051	0.552	0.581
교통	0.033	0.049	0.045	0.675	0.501
탐방정보	0.122	0.066	0.146	1.862	0.065
탐방분위기	0.187	0.050	0.295	3.743	0.000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기존의 이론과 자료로부터 모형 정립의 오류(model specifications errors)에 관한 검토를 한 결과 종속변수의 설명에 필요한 변수의 누락, 불필요한 변수의 포함, 가법성, 선형성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분산팽창계수(VIF) 중 가장 큰 값은 탐방서비스 변화수준으로 2.805(<10)이며, 최소 Tolerance 값도 0.357(>0.1)이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으며, Durbin-Watson(DW)의 값이 2.27로 자기상관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모형의 적합도는 $S_e = \sqrt{MSE}$, F-검정, 결정계수(R^2)를 통해 검정할 수 있다. 추정값의 표준오차(\sqrt{MSE})의 값이 작을수록 대부분의 관측점들이 표본회귀선 중심에 집중되므로 적합한 모형이 되는데 표준오차가 0.897로 작은 값을 가지고 있다. F-검정의 결과, F=29.534(p=0.000)로 나타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에는 상당히 높은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결정계수(R^2)의 값은 0.529(Adj. R^2 =0.511)로 이 모형은 전체 변동의 52.9%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 이상의 3가지의 모형검정의 결과를 고려할 때 추정된 회귀모형은 적합한 모형으로 수용될 수 있다(표 6 참조).

1) 독립변수의 유의성 : 국립공원의 휴양자원, 공원시설, 탐방분위기의 변화수준이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장료 폐지시 탐방만족도의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규명되었다.

2) 인과관계의 방향 :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은 회귀계수 값의 부호로 판단한다. 국립공원의 휴양자원, 공원시설, 그리고 탐방분위기 변화수준의 값의 증가는 탐방만족도 변화수준 값의 증가를 가져온다. 즉, 입장료 폐지시 국립공원의 휴양자원, 공원시설, 탐방분위기에 대한 관리가 잘 될수록 탐방만족도는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3) 인과관계의 크기 : 각 관리부문 변화수준의 값의 증감에 따른 탐방만족도 변화수준의 값의 변화는 해당 독립

변수의 비표준화 회귀계수(Unstd. Coeff.)의 값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다른 조건이 불변인 경우, 탐방분위기 변화수준의 값이 1단위 증가하면 종속변수의 값인 탐방만족도 변화수준의 값은 0.187만큼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의미이다. 이는 여타 국립공원의 관리부문의 수준 중에서 탐방분위기 변화수준이 탐방만족도 저하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공원시설, 휴양자원 변화수준 순으로 탐방만족도 변화수준 값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종속변수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의 크기 : 각 관리부문들이 탐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 크기는 표준화 회귀계수(Std. Coeff.)의 절대값의 크기의 비교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독립변수들 중 탐방만족도 저하에 가장 기여도가 큰 변수는 탐방분위기 변화수준으로 표준화 회귀계수의 값은 0.295이며, 가장 영향력이 작은 변수는 휴양자원 변화수준으로 표준화 회귀계수의 값은 0.160이다.

이상의 분석결과, 입장료 폐지시 국립공원의 탐방만족도 변화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립공원의 관리부문은 탐방분위기인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다음으로 공원시설, 휴양자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장료 폐지시 탐방만족도를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혼잡, 쓰레기 투기, 소음, 취사금지 등 금지활동, 짐상인 및 불법상행위 등 탐방분위기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결 론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입장료 폐지가 국립공원의 탐방만족도 및 휴양자원, 공원시설, 교통, 탐방서비스, 탐방정보, 탐방분위기라는 국립공원의 관리부문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국립공원 관리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석결과, 첫째,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72.6%가 찬성하였으며, 국립공원 내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만을 따로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체의 54.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입장료가 폐지되면 자연훼손과 쓰레기 투기 등 탐방분위기가 가장 많이 나빠질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상업숙박시설, 특산품 판매축제, 탐방정보 제공 등을 입장료 폐지 후 더 개선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응답자들은 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 탐방민족도가 상당히 저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탐방민족도의 변화수준과 모든 관리부문들의 변화수준간의 상관계수의 값은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으며,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탐방민족도 변화수준과 탐방분위기 변화수준간의 상관계수 값이 0.6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입장료 폐지시 예상되는 탐방민족도의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부문은 무엇인가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국립공원의 휴양자원, 공원시설, 탐방분위기의 변화수준이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탐방민족도 저하에 가장 기여도가 큰 변수는 탐방분위기 변화수준으로 나타났다.

2. 입장료 폐지시 국립공원의 관리정책 수립방향 제시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입장료 폐지시 혼잡, 쓰레기 투기, 소음, 취사금지 등 금지활동, 잡상인 및 불법상행위 등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는 탐방민족도의 저하에 직접적인 원인이 됨이 판명되었다. 따라서 입장료 폐지 후 국립공원의 관리정책에서는 탐방분위기의 관리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탐방객의 입장에서 볼 때 입장료가 폐지됨으로서 국립공원에 입장하는 일련의 절차 및 비용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국립공원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 및 경관 보존지역이라는 인식이 약화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립공원이 여타 자연자원 중심형 여가공간과 동일하게 인식될 경우 탐방분위기의 저하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국립공원의 지정목적에 대한 홍보 등 탐방객 인식 수준의 강화를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입장료의 폐지로 인한 탐방객 수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탐방객 분산 및 유도정책의 강화가 반드시 요구된다. 탐방객의 분산 및 유도는 입장료 폐지시 국립공원의 매력물인 휴양자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 자연생태계의 보호, 교통의 분산, 탐방민족도 개선 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서 법·제도적 규제를 통한 직접적 관리방안과 인센티브제 등을 이용한 간접적 관리방안이 확대·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와 같이 제한 없이 탐방객을 수용한다고 봤을 때, 입장료 폐지시 증가된 탐방객 수만큼 이용강도가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

에 대한 탐방제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도 자연휴식년제, 시설예약제, 탐방인원제한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입장료 폐지 이후에는 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탐방객과 그렇지 않은 탐방객들 간의 편익을 좀 더 차별화하여 참여 빈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결과에도 나타났듯이 탐방객의 분산이 특정 장소에 입장하는 탐방객 수 제한에만 국한될 경우 탐방민족도의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탐방객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규제만을 적용·하되 그 규제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매표, 주차안내, 금지예방 행위 안내 등의 기능에 많이 국한되었던 과거 매표소를 탐방객에게 실제적인 탐방서비스를 제공하는 탐방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탐방안내기능, 자연해설, 만남의 장소, 기상특보, 야간산행통제 및 구조 등 현장관리를 위한 거점으로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매표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인력을 탐방객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 재배치해야 할 것이며, 업무환경에 따른 직원교육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탐방정보 부문의 경우, 본 조사에서 관리부문중 유일하게 양적·질적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리부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응답자는 앞으로 입장료 폐지될 경우 국립공원의 혼잡 등을 피하기 위해 탐방시기와 장소를 결정하기 위한 탐방정보의 제공을 기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현재 6개소에 머무르고 있는 탐방안내소를 각 국립공원에 확충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한 공원정보를 제공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단순한 정보제공이 아니라 국립공원 관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탐방객의 자연체험 및 학습을 지원하는 장소로서의 역할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입장료 폐지시 공원관리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새로운 시설 설치 및 인력배치 등의 노력보다도 국립공원 탐방객들의 친환경적 태도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앞서 제시된 탐방분위기 개선, 탐방객 행위제한 및 분산·유도방안, 공원시설 기능전환방안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립공원 이용주체인 탐방객의 인식 및 태도변화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입장료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장료 폐지 전후 공원관리부문들 간의 변화 추이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입장료 폐지 후의 국립공원 관리정책 수립은 입장료 폐지 전후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관리지표들이 어느 정도 저하 혹은 개선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도출된 자료를 근거로 각 공원별, 시기별, 장소별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입장료 폐지시 공원의 입장객수 및 시공간 이동상황을 파악하는데 정보화 기술의 도입도 고려해볼 수 있다.

3. 연구의 한계 및 장차의 연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악형 국립공원 중 가야산 국립공원 탐방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가야산 국립공원과 탐방객의 이용행태가 상이한 북한산·계룡산 국립공원 혹은 지리산·설악산 등과는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탐방객의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입장료 폐지 후 관리부문에 대한 시계열적인 자료가 구축된다면, 영향의 크기 및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국내에서 입장료 폐지가 국립공원 탐방만족도 및 관리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첫 시도였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이 국립공원의 입장료 폐지 결정이 상당히 빠르게 결정되어 기준에 정책수립 근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국립공원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국립공원 유형별로 입장료 폐지 이후의 관리정책 수립에 대한 논의와 입장료 폐지가 가져온 실제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인용문헌

1. 국립공원 연구원. 2006. 공원입장료 폐지에 따른 공원관리강화방안 연구.
2. 국립공원관리공단. 2005. 국립공원별 특성에 따른 공원관리방안 연구 III.
3. 국립공원관리공단. 2006. 국립공원백서 2005.
4. 김성섭. 2000. 공원방문객들의 입장료수준 지각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4(2): 177-198.
5. 박석희. 2005. 신관광자원론. 서울: 일신사.
6. 박장근, 방환복. 2000. 국립공원 등산객의 형태에 따른 시설만족도 조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13호. pp. 721-736.
7. 박종구. 2005. 사회적 형평성과 가격수용성을 고려한 자연공원 입장료 결정정책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9(3): 27-44.
8. 박정인. 2005. 혼잡지각의 규범적 접근에 의한 사회적 수용능력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3(1): 10-18.
9. 배민기, 장병문. 2003. 자연공원의 사회적 수용능력 분석: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30(6): 79-97.
10. 이주희, 배민기. 2006. 국립공원의 탐방서비스 질이 탐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임학회지 95(1): 113-123.
11. 장병문, 배민기. 2002. 자연공원의 분위기가 이용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경학회지 30(1): 29-43.
12. 조윤주, 안기완, 김상오. 2000. 내장산 국립공원 탐방안내소 탐방객의 이용행태분석. 산림경제연구 8(2): 54-62.
13. Akama, John S. and D.M. Kieti. 2003. Measuring Tourist Satisfaction with Kenya's Wildlife Safari: A Case Study Tsavo West National Park. Tourism Management. Vol. 24. pp. 73-81.
14. Buultjens, J., Ratnayake, I., Gnanapala, A., and M. Aslam. 2005. Tourism and its Implications for Management in Ruhuna National Park (Yala), Sri Lanka, Tourism Management. Vol. 26. pp. 733-742.
15. Crompton, J.L and C.W. Lamb. 1986. Marketing Government and Social Service. NY: John Wiley & Sons, Inc.
16. Crompton, J.L. and S.S. Kim. 2001. Reactions to a Large Increase in Admission Price to State Parks. Journal of Park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 19(4): 42-59.
17. Daigle, John J. and Carol A. Zimmerman. 2004. The Convergence of Transportati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Visitor Experience at Acadia National Park.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43. pp. 151-160.
18. Demore, S.W., Fisher, J.D., and R.M. Baron. 1988. The Equity-control Model as a Predictor of Vandalism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18. pp. 80-91.
19. Driver, B. and J. Bassett. 1975. Defining Conflicts among River Users. Naturalist. Vol. 26. pp. 19-23.
20. Dustin, D.L., More, T.A., and L.H. McAvoy. 2000. The Faithful Execution of Our Public Trust: Fully Funding the National Parks through Taxes. Journal of Park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 18(4): 92-103.
21. Gunn, Clare, A. 2002. Tourism Planning. 4th ed., Washington: Taylor and Francis. pp. 57-60.
22. Hammitt, William E., and William M. Rutlin. 1995. Use Encounter Standards and Curves for Achieved Privacy in Wilderness. Leisure Science. Vol. 17. pp. 245-262.
23. Jubenville, Alan. 1976. Outdoor Recreation Planning, Philadelphia: W.B. Saunders Company. pp. 290.
24. Kerkvliet, J. and C. Nowell. 2000. Tools for Recreation Management in Parks. Ecological Economics. Vol. 34. pp. 89-100.
25. Kerr, G. and M. Manfredo. 1991. An Attitudinal Based Model of Pricing for Recreation Servic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3(1): 37-50.
26. Kyle, G.T., Graefe, A. R., and J.D. Absher. 2002. Determining Appropriate Prices for Recreation on Public Lands. Journal of Park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 20(2): 69-89.
27. Noe, F. and M. Uysal. 1997. Evaluation of Outdoor Recreational Settings: a Problem of Measuring User Satisfaction. Journal of Retailing & Consumer Services 4(4): 223-230.
28. Reiling, S.D., Cheng, H., and C. Trott. 1992. Measuring the Discriminatory Impact Associated with Higher Recreational Fees. Leisure Sciences. Vol. 14. pp. 121-137.
29. Schneider, Ingrid E., and William E. Hammitt. 1995. Visitor Response to Outdoor Recreation Conflict: A Concept-

- tual Approach. *Leisure Sciences*. Vol. 17. pp. 223-234.
30. Stankey, G.H. 1973. Visitor Perception of Wilderness Recreation Carrying Capacity, USDA Forest Service Research Paper INT-142. Ogden. Utah: International Forest and Range Experiment Station. p.61.
31. Togridou, Anatoli, Hovardas, Tasos, and John D. Pantis. 2006. Determinants of Visitors' Willingness to Pay for the National Marine Park of Zakynthos, Greece. *Ecological Economics* 57(3) : 1-12.
32. Wang, H.L. 1996. A Systematic Approach to Natural Recreational Resource Management. *Socio-Economic and Planning Science*. Vol. 30. pp. 39-49.

(2006년 1월 18일 접수; 2007년 2월 20일 채택)